

큰빛은혜교회 가정에배지

2024. 1. 31.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송가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1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 2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 4 옛날 선지 예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 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걸겠네

후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걸겠네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요한복음 11장 7~16절

다 같이

- 7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 8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 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 10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 11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 12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낮겠나이다 하더라
- 13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 14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 15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 16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말씀 나눔

----- 도마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

인도자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정죄당해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을 뻔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리하여 제자들과 함께 급히 요단강 저편으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바로 이 일 때문에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근처로 가면 다시 유대인들과 맞부딪칠 것이고 따라서 죽음의 위험이 따르므로 갈 수 없다는 것이고 주님은 그래도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다니를 향해 앞서서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이 때 도마가 한 말이 바로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도마가 평소에 지녔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살펴보고 동일한 믿음이 생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 도마는 순종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먼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고 하셨을 때 꼭 가야 되냐는 말을 합니다.

본문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고 하셨을 때도 잠들었다는 말이 진짜 잔다고 생각하고 그럼 굳이 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뉘앙스로 말합니다.

본문 12~13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낮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가요? 주님을 설득하는 모습 아닙니까? 혹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기 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뜻에 주님을 굴복시키려는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이러한 말을 할 때 그가 어느 정도 이에 동조했다 하더라도 결국 그는 주님의 뜻에 굴복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서 도마와 같이 결국에는 주님의 뜻에 굴복하여 주님을 따라나서는 믿음의 거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도마는 주님을 위해 생명을 내던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도마의 외침 속에서 주님 홀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시도록 둘 수 없다는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마는 참으로 큰 단점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심이 많아 무엇이든 확신할 수 없는 사실은 꼬치꼬치 캐물어서라도 알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또 의심가는 사실은 직접 손과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런데 오늘 살펴본 본문에서는 이런 단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다 주저하고 있을 때 생명을 걸고 유대 지역으로 다시 가시는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에게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결연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셋째, 도마는 형제들에게 함께 할 것을 권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본문 마지막절에 보면 도마는 나는 혼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다른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독선적이지 않으며 형제들에게 권하는 도마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면 간혹 자기의 믿음만을 자랑하고 홀로 믿음이 뛰어난 듯이 독선적으로 행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모습 일까요? 과연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기개와 결단력을 지녔더라도 그것이 이웃에게 자랑하거나 교만히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 어찌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정당성만을 내세워 독선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오히려 믿음의 이웃을 권면하여 함께 바른 믿음의 길로 가도록 합시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 비해 다소 의심이 많았던 것 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심히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29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하지만 그는 주님의 훌륭한 제자요. 사도로서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그에게는 다른 제자 못지 않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도마의 믿음을 본받아 주님을 설득하기 보다 그 뜻에 순종하는 가정과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던지는 성도가 되어 다른 믿음의 형제를 권면하고 서로 화합하여 이끌어 주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

다같이

- 1 최근 주님의 뜻에 굴복하여 주님을 뜻을 따라 행동한 경험이 있나요?
- 2 함께 신앙생활 하는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세요.

중보기도

지도자를 위한

다같이

- 1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과 힘과 해결책을 주시도록
- 2 각 자리에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히도록
- 3 하나님 앞에 진실로 겸손하게 서서 주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 4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마무리 기도

다같이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가정과 내가 되게 하시고. 늘 기도와 감사함으로
큰 믿음 가진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